

祝 辭

趙 完 圭*

내일 卒業式이 있는 관계로 學校가 다소 분주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大學校의 法學研究所가 國家試驗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여러가지 모색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는 방금 金哲洙 所長께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學術行事を 主管해 왔고, 學問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면에서 寄與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國家試驗 중에서 司法·行政 및 外務高試가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5년여의 우리나라 歷史를 통해 司法·行政의 高級要員選拔을 위한 國家試驗이 계속 施行되어 왔고, 그 試驗을 통과한 여러 人材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發展에 寄與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래 우리나라는 激動期이고, 한편으로는 매우 硬直되었던, 즉 權威主義가 支配하던 國家, 社會, 體制에서 보다 民主化되고 보다 自律的인 體制, 社會, 國家로 變貌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時點에서 그러한 高級人材들을 뽑는 문제를 생각할 때, 지난날의 試驗制度和 앞으로의 試驗制度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非專門家여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選拔에 있어서 반드시 成績爲主로 할 것인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司法·行政·外務幹部를 選拔하는 過程에서 人性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社會에 금방 收容될 수 있는 그러한 人格을 갖춘 사람을 選拔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미나에서 여러가지 方案이 나오겠지만, 지난날과 같이 試驗에 合格한 사람들이 그것을 出世의 徵表로 삼는 그러한 식의 選拔이 아니고, 오히려 選拔된 사람에게 보다 많은 責任을 지우고, 보다 많은 奉仕를 하게 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人格을 가진 사람을 選拔하는 制度에 대한 모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大學은 그러한 사람들을 養成하는 機關이므로 大學의 教育體制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다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大學教育和 國家試驗制度가 올바르게 連繫된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公務員들을 選拔하는 方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討論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大學校 總長

그동안 이 行事를 위해 法學研究所 金哲洙 所長께서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여러 教授들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主題發表를 해 주실 여러 發表者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 세미나가 보다 값있고 보람찬 行事が 되고 또한 法學研究所에 더욱 더 많은 發展있기를 祈願합니다.